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설날맞이 행사 설마중 “사랑의 키트” 행사 진행

주안장로교회에서 설립한 주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2월3일(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자 '설마중 사랑의 키트' 나눔 행사를 부평성전 1층 로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평구 지역을 섬기고 있는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032-513-1998)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지역 내에서 아직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은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나눔행사에 누가 참여하여 주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나눔 행사홍보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관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반응과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업의 물품 후원과 개인 후원자분들의 많은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안장로교회에서도 부평성전 로비를 행사장소로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주안복지재단에서는 상임 이사님과 직원들이 함께 하며 여러 물품을 후원해 주셨고, 17사단 장병들, 사랑부, 장애인선교부에서 섬기는 교사분들, '두걸을 봉사단', 복지관 운영위원인 신은호 시의원, 그리고 주안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후원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께서 “멀리 보이던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과 교회 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과 나눔 행사를 진행해 주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는 이 나눔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4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서로를 향한 인사와 교제를 시작으로 사랑의 키트 제작에 앞서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글을 키트 박스에 작성하고 포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랑의 종이에 적어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0여 종의 떡국, 라면, 생필품, 방한용품 등을 박스에 담아 150개의 사랑의 키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키트 물품은 부평구 내 장애인 가정, 경로당, 노숙인 쉼터 및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퍼져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너무 반갑게 사회복지사를 맞이하시면서 “설날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복지사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노숙인 쉼터는 주안교회와 주안복지재단이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훈훈한 사랑을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노숙인에게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번 후원과 자원봉사, 그리고 관심을 통하여 제작된 설마중 “사랑의 키트”가 명절에 소외된 지역 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훈훈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모든 주안장로교회 성도들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032-513-1998)의 사회복지사들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더욱더 지역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